

학생기록물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유형 연구*

- 전남대학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Recognition Type for Student Records: Focused 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강혜라 (Hye-Ra Kang)**

장우권 (Woo-Kwon Chang)***

초 록

이 연구는 학생기록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주체적 생산자인 대학생의 인식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제기하고 Q 방법론을 통해 학생기록물의 중요도에 관한 주관적인 인식(Q1)유형과 학생기록물에 관한 주관적인 인식(Q2) 유형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남대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별로 8명씩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Q1 유형은 집단적 증거형, 주체적 활동형, 민주적 증거형, 성취 중시형이 도출되었으며, Q2 유형은 공동체 역사적 가치형, 개인적 소유형, 역사적 전문가 관리형, 역사적 활용 가치형, 비역사적 보존형이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다양한 기록물 속성을 포괄할 수 있는 관점에서 학생기록물의 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과 둘째, 공동체 아카이브의 관점에서 학생기록물의 관리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학생들이 생산한 학생기록물의 보존을 위한 전략적인 방안(학생기록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보존을 위한 캠페인 등)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ABSTRACT

This study brings up that further studies on the perceptions of university students should be conducted for efficient management of student records. Moreover, the Q methodology is used to identify subjective recognition (Q1) type related to the importance of student records and subjective perception (Q2) of student records type. For this purpose, I carried out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with eight students by each grade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 a result, Q1 type was derived from Collective Evidence type, Independent activity type, Democratic witness type, and achievement-oriented type. The type of Q2 is derived from Historical Value of Community Type, Personal Possession Type, Historical Expert Management Type, Value for Historical Practical Use Type, and Non-historical Preservation Type.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following are suggested: First, the management of student records is needed in a way that encompasses various records of various records properties. Second, the management of student records should be establish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mmunity Archives. Third, a strategic measure for the preservation of student records produced by students is necessary (e.g., a campaign for conservation of student records).

키워드: Q방법론, 학생기록물, 대학생 기록물 인식, 인식유형

Q methodology, Student Records, Student's Recognition, Recognition Type

* 이 글은 기록관리학 석사학위논문(요약·수정하여 보완한 것임).

** 전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 석사(gang921229@naver.com) (제1저자)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wk1961@jn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17년 8월 21일 논문심사일자 : 2017년 9월 11일 게재확정일자 : 2017년 9월 20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3): 95-123, 2017.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7.28.3.095]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생들에게 ‘대학’이란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선 고등교육을 전수받는 교육의 장이자 새로운 문화 및 사람들을 경험해가는 사회화의 장이다. 대학생들은 대학 구성원의 85%를 차지하며 그 수는 약 18만 명¹⁾이고, 학생회(자치회), 동아리, 봉사활동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교내활동과 교외활동을 하며, 수많은 기록물들을 생산해낸다(Samuels 1992, 104-135). 이렇게 대학생이 생산해내는 학생기록물은 대학생 개개인의 역사이자, 대학생들의 집합체인 ‘대학’의 정체성으로도 대표된다(Maher 1992, 238).

국가기록원이 발간한 『2016 대학 기록관리 매뉴얼』에서는 대학의 역사성을 확립하기 위해 개인 또는 교내 단체가 생산한 대학 기록을 수집하여 다양한 역사 기록물을 확보하고 보존해야 함을 명기하면서 대학 내에서 기록물을 생산하는 3주체를 학생·교수·직원으로 구분하여 학생들의 기록물 또한 대학기록관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7년 대학 기록물관리 지침』의 기록관리 업무추진 평가 분야에서는 대학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유형별로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와 더불어 대학역사기록물을 기확수집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평가의 지표로 삼고 있다. 이는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기록물의 이관이나 기록관의 시설 설치 여부가 중심이 되었던 과거의 평가지표(국가기록원 2015)에서 더 나아가 대학기록

관이 ‘대학의 역사 보존 및 대학 정체성의 근거 제공’이라는 실질적인 역할 수행이 강조됨을 시사한다. 대학의 정체성의 근거를 제공한다는 대학기록관의 역할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업무적 증거로서의 가치가 아닌 역사적 가치를 지닌 학생기록물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기록물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생산되지 않으며, 기록물의 생산자이자 관리자인 학생의 인식에 따라 보존되거나 훼손된다. 따라서 학생기록물의 수집·보존 정책이 수립하는데 있어 주체적 생산자인 학생이 학생기록물의 가치 및 중요도, 보존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기록물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는 학생 집단의 일반적인 속성에서 기인(Chute 2000)하거나 객관적인 설문지법(Wagner and Smith 2012; 이정은 외 2017; 허운정 2017), 학생 회장을 통한 인터뷰(최영주 2005; 이유빈 2011) 등을 통해 측정되어왔다. 그 결과 학생들의 주관적인 견해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생기록물에 대해 어떤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Q 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적 영역인 태도나 신념, 확인, 가치를 객관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접근방법이자 분석방법이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성에 기반을 두고 사람들의 동기, 가치, 태도, 인지구조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객관주의적 관점에서의 대상 분류(나이, 수입, 사회계층 등)가 주

1)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에 공시된 2016년도 지방거점대학 재학생/교원/직원의 수를 비교하여 도출함.

는 단점을 극복하고, 심리학적 세분화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더불어 연구대상자 스스로의 언어로 정신을 드러내는 자결적(自決的)인 방법론이라는 점에서 대학생들의 주관적인 견해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데 적합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Q방법을 활용해 학생기록물의 생산자인 대학생의 '학생기록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학생기록물의 효과적인 보존 및 수집을 위한 단초(端初)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1.2.1 학생기록물에 관한 연구

학생기록물에 관한 연구는 학생기록물의 보존과 관리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박지영(2005)은 해외 7개 대학과 국내 3개 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 매뉴스크립트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학생단체기록과 학생운동기록에 어떻게 접근하고, 수집·관리해야 하는지를 제안하였다.

최영주(2005)는 대학구성원인 직원, 교수, 학생이 생산해낸 개인기록물을 기록학적 관점에서의 관리 중요성을 강조하고, ISAD(G)와 ISAAR(CPF)를 이용한 개인기록물의 정리(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학생기록물과 관련하여, 명지대학교 총학생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학생 개인기록물의 관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유빈(2011)은 대학 총학생회 차치 활동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은 설명책임성을 가진다고 정의하고 명지대학교 총학생회의 조직과 기능을 분석하여 각 단계에서 생산되어야 하는 기

록의 종류와 특성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기록물의 현황을 분석한 후 그 방안으로 기록관리과정의 체계화, 기록관리 인프라 확립, 기록 활용을 통한 설명책임성 확보 방안의 세 가지 범주에서 제안하였다.

류신애(2013)는 기존의 대학기록관이 행정 기록의 수집, 대학 역사, 유명 동문과 관련된 기록에 치중되어 수집되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대학기록관은 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기록물에 관한 수집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를 KDI국제정책대학원을 그 사례로 적용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토리 중심의 기록 수집과 서비스를 기획하여 제시하였다.

오윤택(2014)은 학생공동체를 '전공 소속 내지 관심분야 등을 통해 이룬 공동체'로 정의한 후, 학생 공동체가 생산하고,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록물들의 특성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공동체 기록물의 지속적인 기록관리 방안으로 참여형 아카이브와 영국식 공동체 아카이브의 사례를 제시 및 분석하고, 현재 학생공동체의 기록관리 형태를 바탕으로 학생공동체의 자체적인 기록관리 문화의 정착을 강조하였다.

허윤정(2017)은 학생 동아리 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 및 관리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부산대에 재학 중인 학생 100명(학생회 소속과 일반 학생을 각 50명씩 선정)을 대상으로 하여 대학기록관에서 '어떤 기록물을 수집하길 바라는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이후 Larry Hackman과 Joan Warnow-Blewett이 제시한 도큐멘테이션 전략 모델을 적용하여 도큐멘테이션 전략 모델을

수립하고, 대학기록관전문요원 3명과 기록관리학 연구자 2명에게 전문가 검증을 하여 최종적인 모델을 도출하였다.

1.2.2 대학생의 기록물 인식에 대한 연구

대학생의 기록물 인식에 대한 연구는 기록관 활성화, 정보서비스 개선에 관한 연구의 부수적인 절차로써 ‘학생’이라는 이용자그룹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대학생의 기록물 인식’을 주요 주제로 두고 진행된 선행연구로는 Wagner and Smith(2012), 이정은 외(2017)의 연구가 있다.

Wagner and Smith(2012)는 학생기록물의 기록물 기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대학생의 기록물·기록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47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문항은 설문 전 대학기록관에 대한 인식, 대학기록관의 주 이용자 인식, 온/오프라인 기록관 활용 경험, 기록물 유형에 대한 인식, 직원에 대한 인식, 학생기록물 기부 의사로 구성되었다. 도출된 학생들의 인식을 기반으로 수집 정책,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 오리엔테이션, 학생 단체와의 협력을 주요 아웃리치로 제시하였다.

이정은 외(2017)는 대학생들을 기록관의 유용한 잠재적 이용자로 판단하고, 대학생들이 기록물·기록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MORI와 조윤희(2008)의 조사를 참고하여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대학생은 기록물에 대해 무심하고 기록관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기록물관리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었음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용자 세분화 측면에서 기록관 이용 활

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연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기록물에 관해 보존 및 관리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학생기록물이 가지는 속성(성격)에 근거하여 보존 전략을 수립했으나 근래 들어 학생들의 관점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기록물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을 알아 보기 위한 연구는 대학생용 기록관 이용의 ‘객체’로 보는 시선에서 이루어졌으며, 대학생이 인식이 ‘무인식’으로 다수 도출되면서 대학생들의 주관적인 인식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데 미흡했다. 또한, 학생기록물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는 미진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생기록물에 대한 효과적인 수집 및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의 관점을 반영한 학생기록물의 관리방안이 대두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학생기록물의 실질적인 생산자인 ‘학생’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학생기록물에 대한 인식을 알아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학생기록물

2.1.1 학생에 관한 기록물

학생기록물은 학생에 ‘관한’ 기록물과 학생에 ‘의한’ 기록물로 구분된다. 학생에 관한 기록물은 ‘대학의 구성원인 학생에 관하여 타자가 주체로 생산한 기록물’로 교수, 직원, 언론사에 의

해 주로 생산된다(허윤정 2017, 11).

교수에 의해서는 성적 산출, 강의 등 학술 기록에 관한 기록물들이 생겨난다. 이는 대학의 존재 목적인 '지식 전수' 기능과 '연구' 기능에 의거한 것으로, 대학의 가장 기초적인 정체성에 해당하는 기록물이다. 대표적으로 시험 채점표, 과제물, 연구 보고서 등을 들 수 있다.

직원은 대학의 공식적인 업무 기구 및 부서를 통해 '기관 존속', '학사', '지원' 기능 등 행정적인 기능 부분을 지원하면서 학생에 관한 기록물을 다수 생산한다. 행정 기록, 재정 기록, 의료 기록 등으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는 입학·졸업 증명서, 학생 복지 지원, 학생증, 장학금 증여, 교내 프로그램 지원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록물은 학생이 대학에 존재했다는 증거로서의 가치를 지니며, 학생의 '소속'과 연관성이 짙다.

대학 행정의 업무 수행 과정 중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이기 때문에 대학기록관에서 관리하는 필수적인 기록물로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이관되고 기록관리기준표에 의해 분류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74년 교육적인 기록물의 생산, 관리, 접근을 관리함으로써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족교육권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을 제정하였는데, 학생 기록을 (1) 학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록물 (2) 교육기관이 관리하거나 교육기관과 대행기관의 직원 당사자가 관리하는 기록물(20 U.S.C 1232g(a)(4)(A))로 규정하고, 학교에서 행정적으로 생산되는 기록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언론에 의해서는 입상이나 학술적인 발전, 학

생운동 등을 보도한 '사건' 중심의 기록물들이 생산된다. 예를 들어 5·18 당시 전남대학교 학생들의 운동에 관한 기사라든지, 2016년에 있었던 이화여자대학교의 풋볼 집회 보도 자료 등을 들 수 있다. 대학 내부 구성원이 아닌 외부 구성원이 사건에 접근하는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며, 학내 행정적인 기록물에서 다뤄지지 않는 사건을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기록물의 한계점을 보완해준다.

학생에 관한 기록물은 대학의 발전상 및 정체성을 형성하고, 학생들의 소속감을 증대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므로 대학기록관의 아키비스트는 별도의 수집 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수집해야 한다.

2.1.2 학생에 의한 기록물

학생에 의한 기록물은 '학생이 주체가 되어 생산한 개인적·사회적 활동의 증거가 되는 기록물'로 정의된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은 다양한 사회화를 겪고 사회 참여를 하며, 그와 관련된 기록물을 직접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사건 행위의 주체이자 기록물 생산 주체가 되어 다양하고 방대한 기록물을 생산한다(Saumels 1992, 104-135). 그러나 대학의 공식적인 업무나 기구·부서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非)행정기록물로 규정되며, 생산 주체의 범위에 따라 학생 개인기록물과 단체기록물로 구분된다(한국대학기록관협의회 2006).

학생 개인기록물은 대학 구성원의 대학 생활에 따라 생산되는 개인적인 일기나 편지 등과 같은 기록물을 말한다. 대학생이 느꼈던 경험에 기반을 두고 생산되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

관점, 감정, 반응 등이 포함된다(Hobbs 2001, 127). 특히 학생이 보존을 목적에 두고 생산한 기록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규격화된 공공기록물과는 달리 정해진 형식(Format)이 없다. 사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생산자만이 기록물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이유로 생산자 사후에 기록물이 기증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록물의 형태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보존되는 경우가 있다(최영주 2005, 38-39).

학생 단체기록물은 대학 공동체를 구성하는 자치 조직 등에서 단체 활동을 하면서 생산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단체가 소멸되면 기록물도 같이 소멸된다는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학생단체의 지속적인 상태를 파악과 관리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학내 문제 혹은 사회적 이슈 등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이 발간한 신문·잡지·방송도 학생 단체기록물이다. 이러한 기록물들은 대학의 과거 주요 이슈 등 대학사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촛불 집회나 반값 등록금을 위한 학생들의 시위 등 학생 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생산한 기록물²⁾도 학생 단체기록물이다. 이는 전남대학교의 학생운동³⁾처럼 학교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학생에 의한 기록물은 비전자 매체뿐만 아니라 전자적 매체에서도 활발하게 생산된다. 기존의 대학별 커뮤니티 홈페이지를 벗어나 각 총학생회·동아리·학과의 공식 SNS나 동아리 내부에서 친목을 위한 커뮤니티, 그리고 몇몇의 학생이 주도하여 만든 SNS가 중심 창구가 되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수도 과거에 비해 늘어났다.

〈표 1〉 학생기록물의 정의

구분	학생기록물	
	학생에 관한 기록물	학생에 의한 기록물
정의	대학의 구성원인 학생에 관하여 타자가 주체로 생산한 기록물	학생이 주체가 되어 생산한 개인적·사회적 활동의 증거가 되는 기록물
대학 기능	행정, 연구·교육	사회화 촉진, 사회참여
기록물 생산 주체	교수, 직원, 언론사	학생
기록물 유형	행정기록물, 언론 미디어	비행정기록물(개인기록물, 단체기록물)
입수 방법	이관	수집(매뉴스크립트)
매체	학생에 의한 기록물보다 일관됨	다양함
성격	학생에 관한 데이터	학생의 일상기록물
보존 의무	보존 의무 있음	보존 의무 약함
기타		학생자치회 기록물 중 행정 관련 기록물 예외

2) 학생운동은 단·장기적으로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점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대학생이 주체가 되어 집단으로 학생 활동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학생 단체기록물로 포함하였다.

3) 이하정. '박정희 시기 전남대 학생운동' 조명 심포지엄 열려, 호남교육신문, 2015.11.26. <http://www.ihopenews.com/n_news/news/view.html?page_code=&area_code=&no=134196>. [online]. [cited 2017.4.26].

또한, 학생에 의한 기록물은 생산하고 보존하는 주체가 다양하다. 그리고 대학기록관의 수집 정책에 의해 선별되거나 생산자에게 기증을 받아야 하고, 그 형태가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점들은 학생에 의한 기록물이 매뉴스크립트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2.2 대학생의 기록물 인식

대학생의 기록물 인식에 대한 연구는 기록관 활성화, 정보서비스 개선의 측면에서 '학생'이라는 이용자그룹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인식'이 연구의 중점으로 진행된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기록물이란 개

념을 무엇으로 인지하고 있는가, 기록물 관리의 필요성을 어떤 측면에서 인식하고 있는가로 구분된다(〈표 2〉 참조).

첫째, 기록물에 대한 학생들의 개념적 인지 측면은 무인지, 비현용 기록물 중심의 인지, 공문서 중심의 인지로 나타난다. 무인지 상태의 학생들은 학생기록물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며, 학생기록물의 수집·보존의 범위에 대해 지각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사학과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존재 여부를 모르기도 한다(최영주 2005, 1-2; 오윤택 2014, 19-25; Chute 2000, 16-17).

비현용 기록물을 중심으로 인지하는 경우는 잡지/저널의 과월호나 수집된 기록물, 사진, 기

〈표 2〉 학생들의 기록관·기록물 인식

연구자	표집 /조사대상	기록물 인식										
		인지여부/인지형태	관리필요성에 대한 인식									
Chute(2000)	학생일반속성	사학과 학생마저도 존재 여부를 모름	-									
최영주(2005)	명지대 총학생회장	학생기록물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함	-									
이유빈(2011)	명지대 총학생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문서는 학교 서식에 따라 관리 • 회의록은 서기를 통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물을 관리하는 규정 부재 • 특별한 관리 필요 없음 									
Wagner and Smith (2012)	Adelphi University 학생 47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잡지/저널의 과월호(19%) • 수집된 기록물(6%) • 사진(3%) • 기념품(1%) • 복원이 필요한 귀한 물건(5%) 	기록물 기증 의사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기록물: 57% • club 기록물: 74% • Sport team: 66% • Greek society: 66% 									
오윤택(2014)	한신대학교 기록정보관	학생기록물의 수집·보존 범위를 모름	-									
이정은, 강주연, 김은실, 김용 (2017)	J대학 학부생 166명 대학원생 16명	비현용기록 중심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래된 기록물(63.7%) • 기관/조직 업무로 생산된 문서(23.1%) • 기관/지역의 오래된 수집(9.3%) 	기록물 가치 인식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 보존 가치(56.1%) • 미래의 정보이용가치(33.5%) • 법적 증거 가치(7.1%) • 모름(3.3%) 									
허운정(2017)	부산대학교 학생회학생 50명 일반 학생 50명		<table border="0"> <tr> <td>학생회학생</td> <td>></td> <td>일반학생</td> </tr> <tr> <td>• 학생자치기록물</td> <td></td> <td>• 연구/수업활동결과물</td> </tr> <tr> <td>• 언론자료</td> <td></td> <td>• 행사참여기록</td> </tr> </table>	학생회학생	>	일반학생	• 학생자치기록물		• 연구/수업활동결과물	• 언론자료		• 행사참여기록
학생회학생	>	일반학생										
• 학생자치기록물		• 연구/수업활동결과물										
• 언론자료		• 행사참여기록										

■ : 학생기록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 : 학생들의 인식이 연구 대상

념품, 복원이 필요한 귀한 물건 등으로 파악하거나(Wagner and Smith 2012, 545-552), 오래된 기록물, 기관·조직의 업무로 생산된 문서, 기관·지역의 오래된 수집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정은 외 2017, 141-149).

공문서를 중심으로 인지하는 경우는 총학생회의 기록물 중에서 학교 서식 중심의 공문서와 서기를 통해 관리하는 공문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기록물 관리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의 측면은 필요성의 유무로 나뉜다. 먼저, 불필요로 인식하는 경우는 기록물을 관리하는 규정이 부재할뿐더러 특별한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유빈 2011, 41-50).

반대로 대학생들이 기록물의 관리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록물 보존의 가치를 역사적 보존 가치, 미래의 정보이용가치, 법적 증거적 가치로 받아들인다(이정은 외 2017, 141-149). 학생기록물에 한해서는 학생회 학생은 학생자치기록물과 언론자료의 보존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며, 일반학생은 연구·수업활동 결과물과 행사참여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허윤정 2017, 19-25). 또한 기록물의 관리를 위해서 club 기록물, sport team 기록물, Greek society,⁴⁾ 개인기록물의 순으로 기증 의사를 보인다(Wagner and Smith 2012, 545-552).

기존의 연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방법적인 측면에서 주로 설문조사나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학생들의 인식이

조사되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설문조사의 경우, 학생의 수가 표집된 경우가 적고, 객관적인 방법론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의 주관적인 인식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관련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한 경우에는 한 사람이 수많은 학생의 주관을 대표한다는 한계점을 지니며, 특히 기록물 담당자와의 면담을 진행한 것은 제3자의 입장에서 학생을 바라보았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심지어 '학생'이라는 집단의 일반적인 속성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도 있다.

둘째, 학생들의 기록관의 이용 목적은 과제 해결, 학교 행사 자료 탐색 등이며, 기록물에 대해 평상시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3 Q 방법론

Stephenson은 1935년에 인간의 주관성(Personality)은 기존의 요인분석 방법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사람 간의 상관관계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이는 Q 방법론의 시초가 되었다. Q 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적 영역인 태도나 신념, 확인, 가치를 객관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접근 방법이자 질적 연구방법이고 분석 방법이다(Watts and Stenner 2012, 9-10).

특히, 개인 간의 차이가 아닌 '개인 내의 차이'도 중요함을 골자로 하여, 행위자(실험대상자)가 스스로 진술문을 비교하여 순서나 우위

4) Greek Society는 일종의 대학 사교 모임으로, 그리스 알파벳에서 모임의 명칭을 따온다.

(優位)를 본인의 주관에 따라 정함으로써 본인들의 주관성을 스스로 표현해 가기 때문에, 연구자가 연구대상자를 규정하는 기존의 가설의 검증과는 다르게 연구대상자 스스로의 언어로 정신을 드러내는 자결적(自決的)인 방법론이다(김흥규 2003, 6-10). 개인의 주관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동기, 가치, 태도, 인지구조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오택섭, 최현철 2004, 41).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객관주의적 관점의 대상 분류(나이, 수입, 사회계층 등)가 주는 단점을 극복하고, 심리학적 세분화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김흥규 1996, 15-33).

Q 방법론은 세 가지의 통계학적 전제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사람 간의 상관관계는 공통 인자에서 나온 것이라는 전제이다. 즉, 공통적인 집단으로 분류된 사람 간의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공통 인자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해야 한다. 두 번째는 최소의 원칙으로, 공통 인자 수를 결정함에 있어 최소의 원칙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몇 개의 공통 인자가 적절한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통 아이겐 값(eigen value)이 1.0 이상인 인자를 공통 인자로 뽑는다. 세 번째는 회전의 문제로 공통 인자의 회전 방식에 따라 인자 적재치(factor loading)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Q 방법론에서는 “공통 인자들 간의 상관관계는 없다”로 가정하여 직각으로 회전시키고, 인자 적재치를 계산한다(오택섭, 최현철 2004, 16-21, 42-43).

또한, 경험주의 과학방법론은 연역과 귀납을 통해 이론으로부터 가설을 만들고 이를 검증하

기 위한 ‘가설로부터 시작하는 논리’인 반면, Q 방법론은 관찰을 통해 가설을 만들어내는 ‘가설로 향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이론이나 개념, 법칙, 현실적인 적용까지 한눈에 볼 수 있으며, 가설추론의 성격을 가진다는 차이점을 가진다.

3. 연구설계

3.1 연구문제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학생기록물에 대한 인식 유형과 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대학생들이 실제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학생기록물의 종류별 인식 유형에는 각각 무엇이 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학생기록물의 성격·가치·보존·일반사항에 대한 대학생들의 주관적 인식 유형은 각각 무엇이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3.2 Q 모집단 구성 및 표본의 선정

이 연구를 위해 비구조화된 방법으로 학생기록물의 종류에 관한 진술문을 문헌(학술논문, 학위논문, 단행본 등)을 통해 Q-모집단 추출 학생기록물의 ‘종류’(Q1)와 ‘성격·가치·보존·일반사항 등에 대한 인식’(Q2)에 관련된 진술문을 각각 도출한 후, 기록관리학 전공자 4명과 대학생 3명을 대상으로 Pre-test를 통한 피드

백을 받아 중복되는 진술문은 구조화하거나 삭제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문법에 맞지 않은 진술문은 수정하였다.

최종적으로 학생에 의해 생산되는 기록물을 대표하면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대학 생활에서 접할 수 있고 쉽게 연상되는 기록물들이라고 판단되는 37개의 학생기록물 종류(〈표 4〉 참조)와, 어려운 용어와 문법을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34개의 학생기록물에 대한 인식(〈표 5〉 참조)을 도출하였다.

3.3 P 표본의 선정

Q 방법론은 P 표본(연구대상자)의 수가 매우 적다는 것이 특징이다. Q 방법론에서는 표본의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1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보통 25-30명 정도의 수가 적당하고, 너무 많은 수는 지양한다(Brown 1980). 개인 간의 차이 대신 한 개인 안에서의 의미 중요성이 연구대상이므로 완전한 무작위는 지양하기 때문에, 층화표집하였다. 층화표집은 주제에 상이한 수준의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표집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Thompson 1966, 7-12).

‘학생기록물에 대한 인식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학생기록물의 주체적인 생산자인 대학생에 한정하여 P 표본(연구대상자)을 선정하여, 각 학년별로 8명씩 층화표집을 하여 모든 셀에 사람이 채워질 때까지 무작위로 표집 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재학생과 휴학생을 구분하지 않았으나, 만 19세 미만의 학생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표집 결과, 성별로는 남성 19명(60%), 여성 13

명(40%), 단대별로는 사회과학대학 9명(28.1%), 사범대학 4명(12.5%), 자연과학대학·공과대학 각 3명(9.4%), 인문대학·직할학부·경영대학·농업생명과학대학·생명과학대학 각 2명(6.3%), 예술대학·의과대학·치과대학 각 1명(3.1%)으로 구성되었다(〈표 3〉 참조).

3.4 Q 표본의 분류

Q 표본 분류는 강제분포방식에 따라 진행하였다. 〈표 6〉의 지시조건에 따라 Q1과 Q2 진술문을 -3부터 +3까지 7단계로 Q 카드를 배치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기록관리학계에서 학생들의 기록물 인식이 ‘무인식’으로 규정된 바가 많아 9단계가 아닌 7단계를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원점수별 분배된 수는 〈표 7〉과 같다.

Q 표본 분류를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 목적과 학생기록물의 정의를 설명하고 연구동의서를 받은 후에 연구를 시작하였다. Q 진술문을 열거한 리스트를 먼저 보여준 후, Q 카드를 찬성·반대, 중립 세 무더기로 나누게 한 뒤, 찬성→반대→중립 순으로 배치하도록 하면서 가장 양 끝을 먼저 채우도록 권유하였다. 자유롭게 배치를 조정한 후 최종적으로 점검하게 한 뒤, 이를 강제분포표에 옮겨 적었다. Q1과 Q2 설문이 끝난 후, 후속면담을 진행하였다.

3.5 자료의 처리 및 분석

Q 분류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는 Q 분석프로그램(PQMethod Version 2.35)을 사용하여 Q 분석을 실행 후 해석하였다. Q 표본들을 각 P 표본(연구대상자)이 분류한 결과를 가장 동의

하지 않은 항목(-3)을 시작으로 비동의 정도가 약할수록 1점씩 더 하며 중립(0), 동의하는 정도가 강해질수록 계속 1점씩 더해져 가장 동의하는 항목(+3)까지의 자료를 입력한다. 이후, 배리맥스 요인 회전을 실행한 후, 분석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변별력이 높고 유형화가 가능한 요인의 수를 결정한다. 각 요인별로 Z-score가 ±1 이상인 진술문을 중심으로 특성을 도출하고, 다른 유형과 어떤 점에서 차이를 가지는지 분석한다.

〈표 3〉 P 표본의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P 표본	성별	학년	단대
1	여	2	사회과학대학
2	남	1	농업생명과학대학
3	남	4	경영대학
4	남	4	경영대학
5	남	2	공과대학
6	남	1	농업생명과학대학
7	남	4	사회과학대학
8	여	4	자연과학대
9	남	2	사범대학
10	남	3	자연과학대
11	남	4	사범대학
12	남	1	의과대학
13	여	3	치과대학
14	여	1	공과대학
15	남	1	사회과학대학
16	남	4	인문대학
17	남	1	사범대학
18	여	4	직할학부
19	여	3	생활과학대학
20	여	3	사회과학대학
21	여	4	사회과학대학
22	여	1	사회과학대학
23	여	1	예술대학
24	남	2	공과대학
25	여	3	생활과학대학
26	남	2	직할학부
27	여	3	자연과학대
28	여	3	사범대학
29	남	3	인문대학
30	남	2	사회과학대학
31	남	2	사회과학대학
32	남	2	사회과학대학

〈표 4〉 Q1 진술문 구성: 학생기록물 종류

구분	세부분류	N
생산주체	개인적인 기록물(4), 총학생회(6), 총동아리연합회(3), 학과(2), 학과소모임(3), 크루(2), 학생운동(3), 온라인커뮤니티(2)	25
활동	교내행사(2), 교내 프로그램(1), 기숙사(2), 교육·연구(3), 교내·외 공모전·대회(4)	12

〈표 5〉 Q2 진술문 구성: 학생기록물에 관한 인식

구분	세부분류	N
가치에 대한 인식	개인적 가치(2), 교육적 가치(2), 보존적 가치(1), 역사적 가치(2), 행정적 가치(2)	10
보존에 대한 인식	- 관리주체에 대한 인식(2) - 교육에 관한 인식(2) - 기증에 관한 인식(2) - 보존방식에 대한 인식(2) - 수집방식에 대한 인식(3) - 기록물 활용에 대한 인식(4)	15
성격에 대한 인식	기록물의 교육적 성격(2), 상호교류성(1), 일상성(2), 휘발성(1)	6
일반사항에 대한 인식	저작권(1), 내용(1), 생산주체(1)	3

〈표 6〉 Q 표본 분류 지시조건

Q 진술문	지시조건
Q1: 학생기록물 종류	해당 기록물이 대학기록관에서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배치해주세요.
Q2: 학생기록물 인식	해당 진술문에 동의하시는 정도에 따라 배치해주세요.

〈표 7〉 강제분포방식 원점수별 Q 카드 분배 수

구분	-3	-2	-1	0	1	2	3
Q1	4	5	6	7	6	5	4
Q2	4	5	5	6	5	5	4

4. 연구결과 및 해석⁵⁾

4.1 학생기록물 보존 중요도에 대한 인식(Q1)

4.1.1 연구결과 도출

대학생의 학생기록물 보존 중요도에 대한 인식(Q1)에 관한 Q 소트의 평균값은 0, 표준편차는 1.856으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배리맥스 요인 회전을 시행한 후, 아이젠 값이 +1 이상 나온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4개의 요인이 변별력과 67%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기에 이를 중심으로 ‘학생기록물의 종류에 따른 보존 인식’을 분석하였다(〈표 8〉 참조).

〈표 8〉 학생기록물 보존 중요도에 대한 인식(Q1) 요인분석표

P 표본	1요인	2요인	3요인	4요인
1	0.6760 ^X	0.0846	0.2808	0.3321
2	0.6471 ^X	0.3142	0.3804	0.3035
5	0.7075 ^X	-0.4005	0.3909	0.1245
9	0.7529 ^X	0.3149	-0.0599	0.1848
16	0.6257 ^X	-0.1545	0.5580	0.1794
17	0.6737 ^X	0.0136	0.1294	0.5781
19	0.7360 ^X	0.0627	0.4684	0.2593
20	0.6528 ^X	0.4183	0.2812	0.2575
21	0.7114 ^X	0.1903	0.3022	-0.0513
23	0.4408 ^X	0.2190	0.3746	-0.0553
25	0.7703 ^X	0.1153	-0.0737	0.1813
26	0.8140 ^X	0.0616	0.2265	0.0330
27	0.7188 ^X	-0.1213	0.2995	0.1902
29	0.6760 ^X	0.0653	0.3412	0.1244
32	0.6908 ^X	-0.0628	0.5106	0.2546
10	0.0114	0.6006 ^X	0.1629	0.0169
15	0.3740	0.6564 ^X	0.0611	0.1509
31	-0.1629	0.7961 ^X	0.0043	0.3140
3	0.4680	-0.1224	0.6861 ^X	-0.1504

P 표본	1요인	2요인	3요인	4요인
6	0.4230	0.0898	0.4892 ^X	0.0783
7	0.4668	0.1266	0.6546 ^X	0.3679
8	0.4121	0.0463	0.6121 ^X	0.2657
12	0.5256	-0.1484	0.6965 ^X	0.0113
13	0.0576	0.3378	0.6973 ^X	-0.1823
22	-0.1953	0.0454	0.6448 ^X	0.4636
30	0.1654	0.2767	0.5656 ^X	0.1712
4	0.1956	-0.0008	0.2292	0.6390 ^X
18	0.2295	0.2036	-0.1166	0.7044 ^X
28	0.2551	0.3842	0.1212	0.7071 ^X
11	0.4351	0.3262	0.5164	0.3779
14	0.5228	0.3686	0.5345	0.2165
24	0.0322	0.5262	0.1072	0.5367
Eigen values	14.0904	3.4413	2.1619	1.5498
설명력(%)	28	10	18	11
설명력 합계	67			

^X가 주어진 요인이 각 Q 소트의 유형을 가르는 주요 요인

가장 타 유형과 구별되는 것은 Q1-Ⅱ 유형이다. Q1-Ⅰ 유형과 Q1-Ⅲ 유형은 상관관계(0.7035)가 다소 높았다. 그러나 Q 방법론에서는 높은 상관계수가 반드시 두 요인 간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다(김흥규 2008, 211). Q-Ⅰ 유형과 Q1-Ⅱ 유형은 가장 낮은 상관관계(0.1531)를 보이고 있어, 서로 구별된 특성을 보여주는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구별되는 유형은 Q1-Ⅱ 유형과 Q1-Ⅲ 유형으로 0.1873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표 9〉 참조).

〈표 9〉 Q1 유형 간 상관관계계수

Q1유형	Q1-Ⅰ	Q1-Ⅱ	Q1-Ⅲ	Q1-Ⅳ
Q1-Ⅰ	1	0.1531	0.7035	0.4864
Q1-Ⅱ		1	0.1873	0.4259
Q1-Ⅲ			1	0.3488
Q1-Ⅳ				1

5) Q 표본 분류를 진행하기에 앞서, IRB 심의를 받았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IRB 심의 √ 2017. 03. 20 신청 √ 2017. 04. 04 시정승인
 √ 2017. 04. 06 승인 (IRB No.1040198-170320-HR-015-02)

4.1.2 Q1-I 유형: 집단적 증거형

Q1-I 유형은 32명 중 15명(46.8%)이 속한 유형으로 가장 많은 P 표본이 속하였다. 이 유형의 특성을 보이는 대학생은 공적활동에 기반을 둔 학생자치회(총학생회, 전체동아리연합회)의 기록물(23번, 1.869; 27번, 1.753; 28번, 1.352; 29번, 1.324)과 학생운동 활동의 증거가 되는 기록물(16번, 1.804)의 보존중요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사적이고 사생활과 관련이 깊은 “졸업 당시 친구들과끼리 만든 기록물(12번, -1.168)”, 기숙사 관련 기록물(6번, -1.634; 7번, -1.948),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작성한 일기, 편지, 녹취, 사진 등의 기록물”(11번, -1.810)의 보존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면담에서 학교에서 주관하고 재정의 지원을 받거나, 차후 분쟁이 생길 시에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생자치회의 기록물과 학생운동 기록물 종류의 보존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이 유형을 ‘집단적 증거형’으로 명명하였다(〈표 10〉 참조).

4.1.3 Q1-II 유형: 주체적 활동형

Q1-II 유형의 특징을 보이는 대학생은 학생운동기록물(16번, 1.841)의 보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활동의 결과로 생산된 기록물들(12번, 1.727; 10번, 1.578; 18번, 1.531; 37번, 1.167; 19번, 1.005)의 보존 또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기숙사 규약(6번, -1.005)이나 SNS(7번, -1.875; 21번, -1.201), 오프라인 방명록(20번, -1.383) 등과 같이 사적인 영역에서 생산되는 학생기록물

과 총학생회에서 발간한 자료집(29번, -1.477), 총학생회장 선거 관련 기록물(28번, -1.477)의 보존 중요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표 11〉 참조).

후속면담에서 기록물의 ‘공적 이용’보다 학생들의 이념, 노력 등 학생기록물이 생겨난 과정과 정신적인 부분을 높게 평가하고, 이를 반영한 기록물의 보존 중요도에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특색 있게 구별되는 점이며, 따라서 ‘주체적 활동형’으로 명명하였다.

4.1.4 Q1-III 유형: 민주적 증거형

이 유형에 속하는 대학생들은 학생운동 기록물(16번, 1.914), 학생자치회의 운영 기록물과 회의록(23번, 1.864; 27번, 1.565; 32번, 1.559, 26번, 1.041), 교수와 학생 간 상담 내용(1번, 1.367), 교육·연구 기록물(35번, 1.160; 37번, 1.087)의 보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사적(私的) 기록물(12번, -1.045; 7번, -1.673)과 소모임이나 동아리 및 크루 활동을 통해 생산된 학생기록물(15번, -1.061; 21번, -1.092; 30번, -1.169; 31번, -1.434)의 보존 가치는 낮게 인식하고 있다(〈표 12〉 참조).

후속면담을 통해 ‘공공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공동체 및 민주주의와 관련이 깊은 학생기록물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민주적 증거형’으로 명명하였다.

4.1.5 Q1-IV 유형: 성취 중시형

Q1-IV 유형에 속하는 대학생들은 “학생이 개인적으로 출간한 도서(10번, 1.973)”를 포함하여 교외 대회·공모전에서의 기록물(19번, 1.973; 3

번, 1.734; 2번, 1.734), 학생들끼리의 연구 활동의 결과물(37번, 1.007)의 보존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반면, 사적인 활동에서 생산된 학생기록물(7번, -1.737; 6번: -1.734; 12번, -1.425 11번, -1.074)과 SNS 온라인 학생기록물(21번, -1.737; 25번, -1.133, 31번, -1.076), 오프라인 방명록(20번, -1.189)의 보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 즉, Q1-IV 유형은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을 통해 결과를 생취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보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표 13〉 참조).

Q1-IV 유형의 학생들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루어낸 기록물이며, 공적·대외적으로 활용되었을 때 후배들에게 이롭게 되는 기록물을 중요하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타 유형에 비해 교외 대회·공모전 관련 기록물의 보존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학생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운동기록물의 보존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

다는 점, 학생자치회와 관련된 기록물에 대해 크게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는 점이 다른 유형과 구별되는 특성이다.

Q1-IV 성취 중시형은 학생이 스스로 노력의 결과를 생취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학생기록물이 활용되었을 때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운동 관련 기록물은 개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보존에 있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타 유형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이에 ‘성취 중시형’으로 명명하였다.

4.1.6 Q1 유형 간 공통된 특성

학생기록물 보존 중요도에 대한 인식(Q1) 유형 간에 표준점수 차가 적어 공통된 특성을 보이는 진술문은 〈표 14〉와 같다.

공통적으로 보존 중요도에 부정적으로 인식을 보이고 있는 학생기록물은 “기숙사 내에서

〈표 10〉 Q1- I 유형의 배열점수표(표준점수 ±1.00 이상을 보인 항목)

응답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동의	23	총학생회의 회의 자료 및 학생회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행사 운영 포함)	1.869
	16	학생운동의 활동의 증거가 되는 기록물들(ex. 이화여대 촛불집회, 전남대 학생시위 등 특정한 사건과 관련된 기록물들)	1.804
	27	총학생회장 선거에 사용된 후보자들 관련된 기록물(전단, 명함, 공약집 등)	1.753
	28	총학생회장 선거 당시 사용된 투표용지, 투표인명목록 등	1.352
	29	총학생회에서 발간한 홍보집, 포스터, 안내책자 등	1.324
	17	학생들의 사회적 의사를 담고 있는 대자보	1.126
	26	전체동아리연합회(중앙동아리를 관리하는 자치회)의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	1.091
비동의	12	졸업 당시 친구들끼리 만든 기록물(ex.편지, 사진, 동영상, 현수막 등)	-1.168
	6	기숙사 내에서 룸메이트 간 협의한 규칙을 적은 문서	-1.634
	11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작성한 일기, 편지, 녹취, 사진 등의 기록물	-1.810
	7	기숙사 내에서 룸메이트 간 SNS(카카오톡 포함)	-1.948

〈표 11〉 Q1-II 유형의 배열점수표(표준점수 ±1.00 이상을 보인 항목)

응답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동의	16	학생운동의 활동의 증거가 되는 기록물들 (ex. 이화여대 촛불집회, 전남대 학생시위 등 특정한 사건과 관련된 기록물들)	1.841
	12	졸업 당시 친구들끼리 만든 기록물(ex. 편지, 사진, 동영상, 현수막 등)	1.727
	10	학생이 개인적으로 출간한 도서	1.578
	18	학생이 교내 신문, 잡지에 투고한 글	1.531
	37	학생들끼리 모여 진행한 연구 활동의 결과물 (학교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였으나, 학과의 과제로 제출되지 않은 연구만 해당)	1.167
	19	교외 공모전에 참가한 출품작	1.005
비동의	6	기숙사 내에서 룸메이트 간 협의한 규칙을 적은 문서	-1.005
	21	학과 소모임의 온라인 SNS	-1.201
	20	학과 소모임의 오프라인 방명록(이플리에, 방명록 등)	-1.383
	29	총학생회에서 발간한 홍보집, 포스터, 안내책자 등	-1.477
	28	총학생회장 선거 당시 사용된 투표용지, 투표인명목록 등	-1.477
	7	기숙사 내에서 룸메이트 간 SNS(카카오톡 포함)	-1.875

〈표 12〉 Q1-III 유형의 배열점수표(표준점수 ±1.00 이상을 보인 항목)

응답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동의	16	학생운동의 활동의 증거가 되는 기록물들 (ex. 이화여대 촛불집회, 전남대 학생시위 등 특정한 사건과 관련된 기록물들)	1.914
	23	총학생회의 회의 자료 및 학생회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행사 운영 포함)	1.864
	27	총학생회장 선거에 사용된 후보자들 관련된 기록물(전단, 명함, 공약집 등)	1.565
	32	학과 학생회의 회의 자료 및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	1.559
	1	학생과 교수 간의 상담 내용을 담은 기록(의무적인 기록 제외) (ex. 진로 상담, 성적 문의 포함)	1.367
	35	수업시간 제출된 시험지와 과제	1.160
	37	학생들끼리 모여 진행한 연구 활동의 결과물 (학교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였으나, 학과의 과제로 제출되지 않은 연구만 해당)	1.087
	26	전체동아리연합회(중앙동아리를 관리하는 자치회)의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	1.041
비동의	12	졸업 당시 친구들끼리 만든 기록물(ex. 편지, 사진, 동영상, 현수막 등)	-1.045
	15	전체동아리에 참가하면서 개인적으로 학생이 생산한 기록물 (사진, 일기, 동영상 등)	-1.061
	21	학과 소모임의 온라인 SNS	-1.092
	30	학생들이 참가한 크루에 참가한 학생들이 생산한 사진첩, 회의록, 동영상 등의 기록물	-1.169
	31	학생들이 참가한 크루의 온라인 게시글(SNS 포함)	-1.434
	7	기숙사 내에서 룸메이트 간 SNS(카카오톡 포함)	-1.673

〈표 13〉 Q1-Ⅳ 유형의 배열점수표(표준점수 ±1.00 이상을 보인 항목)

응답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동의	10	학생이 개인적으로 출간한 도서	1.973
	19	교외 공모전에 참가한 출판작	1.973
	3	교외 대회에 참가하여 생산한 기록물(사진, 녹취, 동영상 등 관련 기록물)	1.734
	2	교외 대회에 참가하여 받은 상장	1.734
	37	학생들끼리 모여 진행한 연구 활동의 결과물 (학교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였으나, 학과의 과제로 제출되지 않은 연구만 해당)	1.007
비동의	11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작성한 일기, 편지, 녹취, 사진 등의 기록물	-1.074
	31	학생들이 참가한 크루의 온라인 게시글(SNS 포함)	-1.076
	25	익명의 학생이 운영한 SNS(대나무숲, 00대학교 대신 알려드립니다 등)	-1.133
	20	학과 소모임의 오프라인 방명록(아플리에, 방명록 등)	-1.189
	12	졸업 당시 친구들끼리 만든 기록물(ex. 편지, 사진, 동영상, 현수막 등)	-1.425
	6	기숙사 내에서 룸메이트 간 협의한 규칙을 적은 문서	-1.734
	7	기숙사 내에서 룸메이트 간 SNS(카카오톡 포함)	-1.737
	21	학과 소모임의 온라인 SNS	-1.737

〈표 14〉 Q1 유형 간 공통된 특성을 보이는 배열점수표

No.	진술문	Q1-I		Q1-II		Q1-III		Q1-IV	
		Q-SV	표준점수	Q-SV	표준점수	Q-SV	표준점수	Q-SV	표준점수
5*	학교 행사(학교 축제, 전체 운동회 등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한 학생이 작성한 메모	-2	-0.77	0	-0.32	0	-0.37	-2	-0.66
7*	기숙사 내에서 룸메이트 간 SNS(카카오톡 포함)	-3	-1.95	-3	-1.88	-3	-1.67	-3	-1.74
8	교내 학생 간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생산된 기록물(ex. 버디버디, 멘토링 등)	0	0.16	2	0.79	1	0.22	0	0.16
9*	학교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 게시글(ex. 전대광장 등)	-1	-0.59	-1	-0.56	-1	-0.65	-1	-0.29
14	전체동아리 내 온라인 게시판의 글	0	-0.35	-1	-0.74	-2	-0.81	-1	-0.53
25*	익명의 학생이 운영한 SNS(대나무숲, 00대학교 대신 알려드립니다 등)	-1	-0.66	-2	-1	-1	-0.69	-2	-1.13
37	학생들끼리 모여 진행한 연구 활동의 결과물 (학교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였으나, 학과의 과제로 제출되지 않은 연구만 해당)	1	0.65	2	1.17	2	1.09	2	1.01

Q-SV=Q-Sort Value, (P < .05 ; Asterisk (*) Indicates Significance at P < .01)

룸메이트 간 SNS(7번)”, “학교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 게시글(9번)”, “익명의 학생이 운영한 SNS(25번)”이다. 반면,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는 학생기록물

은 “학생들끼리 모여 진행한 연구 활동의 결과물(37번)”이다. 또한, “학교 행사에 참가한 학생이 작성한 메모(5번)”, “교내 학생 간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생산된 기록물(8번)”, “전체 동아리 내 온라인 게시판의 글(14번)”은 각 유형 간 표준점수의 차이가 적어 공통된 특성으로 도출되었다.

4.2 학생기록물에 대한 주관적 인식(Q2)

4.2.1 연구결과 도출

대학생의 학생기록물에 대한 주관적 인식(Q2)에 관한 Q 소트의 평균값은 0, 표준편차는 1.923으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배리맥스 요인 회전을 시행한 후, 아이젠 값이 1 이상 나온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표 15>처럼 총 8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그 중 5개의 요인이 변별력과 67%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기에 이를 중심으로 ‘학생기록물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살펴보았다.

<표 15> 학생기록물에 대한 주관적 인식(Q2) 요인분석표

P 표본	1요인	2요인	3요인	4요인	5요인
1	0.6283 ^X	0.4511	0.3126	0.2414	-0.0529
8	0.5800 ^X	0.065	0.3017	0.3413	0.2157
9	0.7671 ^X	-0.0466	0.2897	0.2236	-0.0815
10	0.6965 ^X	0.0606	0.3705	0.2016	0.2673
13	0.7810 ^X	0.2407	-0.0543	0.2153	0.0335
17	0.7072 ^X	0.2807	0.32	0.0191	0.1249
23	0.8235 ^X	0.0442	0.2575	0.2169	0.0036
27	0.6942 ^X	-0.1202	0.2892	-0.3206	0.1355
29	0.7569 ^X	0.1728	0.0868	0.1984	0.1607
31	0.5407 ^X	0.1683	0.408	-0.241	0.1408
32	0.7692 ^X	-0.201	0.2978	0.0032	-0.0228
4	-0.3326	0.7012 ^X	0.2734	0.1923	0.0959
5	0.2427	0.7733 ^X	-0.0315	-0.0719	-0.0066
18	0.2774	0.7829 ^X	-0.3184	-0.0016	0.2208
28	0.2154	0.5886 ^X	0.404	0.1272	0.2444

P 표본	1요인	2요인	3요인	4요인	5요인
6	0.161	0.0545	0.7242 ^X	0.1771	0.1069
7	0.357	-0.0638	0.7216 ^X	0.3466	0.1173
14	0.0547	-0.0655	0.7222 ^X	-0.0436	0.1952
21	0.4283	-0.1317	0.7004 ^X	0.182	-0.0584
22	0.3726	-0.1766	0.5893 ^X	-0.3331	-0.1499
25	0.3211	0.3744	0.6503 ^X	-0.0277	-0.0323
30	0.3549	0.2029	0.6905 ^X	0.2335	-0.0599
11	0.2591	0.0386	0.0605	0.7579 ^X	-0.0853
19	0.2381	0.0472	0.4536	0.7066 ^X	0.0162
2	-0.0516	0.192	0.0574	-0.0012	0.7551 ^X
15	0.5682	0.0312	0.0354	-0.102	0.6699 ^X
3	-0.2122	0.5694	-0.6087	-0.0188	-0.0454
12	-0.1036	0.3903	-0.4492	-0.2023	0.2659
16	0.2183	-0.1932	0.4333	0.3786	0.4759
20	0.1472	0.4443	-0.0313	0.1166	0.4123
24	0.0473	0.437	-0.012	-0.2805	0.4965
26	0.5351	0.1908	0.5087	0.127	-0.1362
Eigen values	11.3607	4.2739	2.3628	1.9447	1.5241
설명력 (%)	23	12	18	7	7
설명력 합계	67				

“X”가 주어진 요인이 각 Q 소트의 유형을 가르는 주요 요인

Q2- I 유형과 Q2- III 유형의 상관관계계수가 0.6393으로 다소 높지만, Q1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높은 상관계수가 반드시 두 요인 간에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Q2-IV 유형과 Q2-V 유형은 상관관계가 0.0363으로 가장 독립되는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Q2- II 유형과 Q2- III 유형, Q2- III 유형과 Q2- V 유형 간의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6> 참조).

<표 16> Q2 유형 간 상관관계계수

Q2유형	Q2- I	Q2- II	Q2- III	Q2- IV	Q2- V
Q2- I	1	0.2677	0.6393	0.4764	0.3235
Q2- II		1	0.1065	0.1328	0.3155
Q2- III			1	0.4704	0.1586
Q2- IV				1	0.0363
Q2- V					1

4.2.2 Q2-I 유형: 공동체 역사적 가치형

Q2-I 유형은 32명 중 11명(34.4%)이 속한 유형으로, 가장 많은 P 표본이 속한 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대학생은 학생이 대학의 구성원이자 주체이기 때문에 학생기록물은 대학의 정체성과 역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와 연관된다면 역사적 활용 측면에서 개인적인 기록물도 수집·기증되어야 하며, 일반 학생들의 기록물을 중심으로 현재와 과거의 기록물이 대등하게 수집되길 바라고 있다. 또한, 왜곡될 가능성이 큰 학생운동기록물이 빠르게 수집되길 바라고, 유형보다는 내용을 보존의 근거로 삼아야 되며 보존된 기록물의 저작권은 악용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생기록물이 의사표현의 수단이라는 것에 다른 유형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다른 유형과 달리 긍정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 구별된다(〈표 17〉 참조). 이에 '공동체 역사적 가치형'으로 명명하였다.

4.2.3 Q2-II 유형: 개인적 소유형

이 유형에 속한 대학생은 학생기록물을 개인적인 기록물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증된 학생기록물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과 학생기록물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큰 우려로 인해 기록물을 기증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다. 또한 개인소유물로서 쉽게 폐기가 가능하다 인식하고 있으며, 보존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다만 학생기록물을 통해 대학 행정기록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과거 학생의 문화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학생을 중심으로 수집이 이뤄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른 유형에 비해 기증된 학생기록물의 저작권(소유권)이 학생에게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동의하며, 학생기록물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다른 유형과 달리 유일하게 대학의 다른 구성원(직원, 교사)에 비해 학생기록물이 덜 중요하고 행정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필요가 없고, 기록물 교육의 필요성과 수강 의사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표 18〉 참조). 이에 '개인적 소유형'으로 명명하였다.

4.2.4 Q2-III 유형: 역사적 전문가형

Q2-III 유형에 속하는 대학생은 학생기록물이 대학의 역사 및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며, 학생기록물의 활용이 학생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수집된 학생기록물의 적극적인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관리의 측면에서 학생기록물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사건을 중심으로 대학(기록관)의 전문가 주관 아래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표 19〉 참조).

학생들의 사고를 담고 있는 학생기록물은 사적인 기록물이라도 대학과 관련성이 있다면 대학의 역사·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Q2-I 유형과 다소 비슷한 인식을 보인다. 그러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전문가(대학)의 역할 더욱 중시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또한, 유일하게 교수님과 상담 내용 또한 대학의 역사 및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유형과 구별된다. 따라서 '역사적 전문가형'으로 명명하였다.

<표 17> Q2- I 유형의 배열점수표(표준점수 ±1.00 이상을 보인 항목)

응답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동의	7	학생기록물은 대학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함으로써 대학의 존립과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한다.	1.651
	5	학생기록물은 교수 기록물, 행정기록물만큼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	1.464
	33	학생기록물의 형태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1.364
	19	학교와 관련된 주요한 사건(ex. 이화여대 촛불시위)이 있다면, 사건이 끝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된 학생들의 기록물이 수집되는 것이 좋다.	1.232
	34	학생기록물에 대한 저작권(소유권)은 기록물이 기록관에 기증되어도 학생에게 있어야 한다.	1.124
	25	과거에 생산된 학생기록물들은 현재의 우리들이 학교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117
	6	학생기록물이 학교의 역사 및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1.028
비동의	24	개인적인 학생기록물을 기증한다면 활용보다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함이다.	-1.140
	2	교내 활동을 하면서 생산한 개인적인 기록물은 나의 소중한 추억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기록물이며, 이는 학교의 역사 및 정체성과 연관성이 없다. (행정적, 공적, 의무적으로 학교를 통해 생산되는 기록물 제외)	-1.403
	17	기증된 학생기록물은 '관련된 사건(주제)'보다는 기증자를 중심으로 분류(정리)되어 보존되어야 한다.	-1.530
	18	일반 학생들의 학생기록물이 보존되기 보다는 학생회장과 같은 특정 학생들의 학생기록물을 중심으로 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	-1.543
	31	공식적인 모임이나 단체를 통하지 않은 비공식적 활동과 관련된 기록물은 학생기록물이 아니다. 즉, 학생이 공식적인 단체(ex. 총학생회, 중앙동아리 등)를 통해 생산해낸 공식적인 기록물만이 학생기록물이다.	-1.706
	20	현재 학생들의 기록보다는 과거 학생들의 기록이 우선적으로 수집되고 보존되어야 한다.	-1.741

<표 18> Q2- II 유형의 배열점수표(표준점수 ±1.00 이상을 보인 항목)

응답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동의	34	학생기록물에 대한 저작권(소유권)은 기록물이 기록관에 기증되어도 학생에게 있어야 한다.	2.012
	21	학생기록물을 기증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까봐 걱정된다.	1.469
	28	학생기록물은 의식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생산된다.	1.341
	22	기록관에 수집되더라도 개인적인 기록물이기 때문에 보존만 되고, 공개되지 않았으면 한다.	1.178
	30	내가 생산 및 보관하고 있는 학생기록물은 쉽게 버릴 수 있으며, 그래도 큰 상관이 없다.	1.013
	25	과거에 생산된 학생기록물들은 현재의 우리들이 학교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003
비동의	27	학생기록물은 내가 아닌 다른 이들에게로 향하는 학생들의 의사표현의 수단이다.	-1.037
	9	학생기록물은 행정적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1.075
	18	일반 학생들의 학생기록물이 보존되기 보다는 학생회장과 같은 특정 학생들의 학생기록물을 중심으로 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	-1.223
	17	기증된 학생기록물은 '관련된 사건(주제)'보다는 기증자를 중심으로 분류(정리)되어 보존되어야 한다.	-1.410
	14	학교의 역사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내가 가진 학생기록물을 적극적으로 기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514
	13	학생기록물의 보존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548
	32	교수님과 개인의 개인적인 상담 내용도 대학의 역사 및 정체성에 도움이 되는 학생기록물이다. (의무적으로 학교에 제출해야하는 기록물 제외)	-1.566
12	학생기록물을 오래 보존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강의가 있다면 들을 것이다.	-1.794	

〈표 19〉 Q2-Ⅲ 유형의 배열점수표(표준점수 ±1.00 이상을 보인 항목)

응답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동의	19	학교와 관련된 주요한 사건(ex. 이화여대 촛불시위)이 있다면, 사건이 끝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된 학생들의 기록물이 수집되는 것이 좋다.	1.800
	26	학생기록물의 활용은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1.504
	6	학생기록물이 학교의 역사 및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1.396
	25	과거에 생산된 학생기록물들은 현재의 우리들이 학교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375
	23	학교의 발전에 기여가 되도록 수집된 학생기록물을 활용한 콘텐츠의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1.359
	11	학생기록물의 관리는 학생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학교(기록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	1.179
비동의	30	내가 생산 및 보관하고 있는 학생기록물은 쉽게 버릴 수 있으며, 그래도 큰 상관이 없다.	-1.214
	17	기증된 학생기록물은 '관련된 사건(주제)'보다는 기증자를 중심으로 분류(정리)되어 보존되어야 한다.	-1.221
	10	학생은 학생기록물이 생산된 활동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기록물의 관리는 학생들이 하는 것이 좋다.	-1.230
	22	기록관에 수집되더라도 개인적인 기록물이기 때문에 보존만 되고, 공개되지 않았으면 한다.	-1.266
	16	학생기록물들을 지금까지 스스로의 기준으로 보존 및 관리해왔고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1.268
	18	일반 학생들의 학생기록물이 보존되기 보다는 학생회장과 같은 특정 학생들의 학생기록물을 중심으로 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	-1.409
	2	교내 활동을 하면서 생산한 개인적인 기록물은 나의 소중한 추억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기록물이며, 이는 학교의 역사 및 정체성과 연관성이 없다. (행정적, 공적, 의무적으로 학교를 통해 생산되는 기록물 제외)	-1.932

4.2.5 Q2-Ⅳ 유형: 역사적 활용 가치형

이 유형에 속하는 대학생은 학생기록물이 대학의 역사와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며, 특히 학생기록물의 활용적인 측면을 중시한다. 개인적인 기록물에 대한 수집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수집·기증된 기록물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콘텐츠로 개발 및 활용되어야 그 가치가 있으며, 수월한 활용을 위해 저작권이 학교에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기증된 학생기록물은 대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은 적다고 인식하며, 학생기록물 관리에 관한 강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특히, 저작권이 학교에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점은 다른 유형과 비교했을 때 유일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다(〈표 20〉 참조). 이에 '역사적 활용 가치

형'으로 명명하였다.

4.2.6 Q2-V 유형: 비역사적 보존형

이 유형에 속하는 대학생은 다른 유형에 비해 그 보존 및 활용이 대학의 정체성과 역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기록물은 다른 구성원의 기록물과 대등한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의 생각을 담고 있는 학생운동기록물에 대해 증거적 가치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수집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학생기록물의 내용과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보존 측면에서 대학을 통해 학생기록물의 보존이 이뤄지길 바라지만, 개인적으로도 관리하기 위해 기록물관리교육의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학생기록물의 보존에 대한 강의 필

<표 20> Q2-Ⅳ 유형의 배열점수표(표준점수 ±1.00 이상을 보인 항목)

응답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동의	7	학생기록물은 대학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함으로써 대학의 존립과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한다.	1.817
	23	학교의 발전에 기여가 되도록 수집된 학생기록물을 활용한 콘텐츠의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1.549
	25	과거에 생산된 학생기록물들은 현재의 우리들이 학교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479
	28	학생기록물은 의식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생산된다.	1.282
	19	학교와 관련된 주요한 사건(ex. 이화여대 촛불시위)이 있다면, 사건이 끝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된 학생들의 기록물이 수집되는 것이 좋다.	1.141
비동의	24	개인적인 학생기록물을 기증한다면 활용보다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함이다.	-1.141
	34	학생기록물에 대한 저작권(소유권)은 기록물이 기록관에 기증되어도 학생에게 있어야 한다.	-1.141
	17	기증된 학생기록물은 '관련된 사건(주제)'보다는 기증자를 중심으로 분류(정리)되어 보존되어야 한다.	-1.211
	12	학생기록물을 오래 보존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강의를 있다면 들을 것이다.	-1.211
	20	현재 학생들의 기록보다는 과거 학생들의 기록이 우선적으로 수집되고 보존되어야 한다.	-1.211
	32	교수님과의 개인적인 상담 내용도 대학의 역사 및 정체성에 도움이 되는 학생기록물이다. (의무적으로 학교에 제출해야하는 기록물 제외)	-1.282
	21	학생기록물을 기증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까봐 걱정된다.	-1.282
	3	내가 수업 중에 생산한 노트 및 연구 관련 기록물은 대학 내 지적 발전(연구 활동, 과제 해결 등)에 도움을 준다.	-1.549
	22	기록관에 수집되더라도 개인적인 기록물이기 때문에 보존만 되고, 공개되지 않았으면 한다.	-1.817

<표 21> Q2-Ⅴ 유형의 배열점수표(표준점수 ±1.00 이상을 보인 항목)

응답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동의	19	학교와 관련된 주요한 사건(ex. 이화여대 촛불시위)이 있다면, 사건이 끝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된 학생들의 기록물이 수집되는 것이 좋다.	1.840
	22	기록관에 수집되더라도 개인적인 기록물이기 때문에 보존만 되고, 공개되지 않았으면 한다.	1.840
	11	학생기록물의 관리는 학생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학교(기록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	1.590
	33	학생기록물의 형태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1.478
	13	학생기록물의 보존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339
비동의	5	학생기록물은 교수 기록물, 행정기록물만큼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	1.115
	10	학생은 학생기록물이 생산된 활동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기록물의 관리는 학생들이 하는 것이 좋다.	-1.088
	26	학생기록물의 활용은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1.115
	6	학생기록물이 학교의 역사 및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1.478
	17	기증된 학생기록물은 '관련된 사건(주제)'보다는 기증자를 중심으로 분류(정리)되어 보존되어야 한다.	-1.590
	31	공식적인 모임이나 단체를 통하지 않은 비공식적 활동과 관련된 기록물은 학생기록물이 아니다. 즉, 학생이 공식적인 단체(ex. 총학생회, 중앙동아리 등)를 통해 생산해낸 공식적인 기록물만이 학생기록물이다.	-1.590
32	교수님과의 개인적인 상담 내용도 대학의 역사 및 정체성에 도움이 되는 학생기록물이다. (의무적으로 학교에 제출해야하는 기록물 제외)	-1.840	

〈표 22〉 Q2 유형 간 공통된 특성을 보이는 배열점수표

No.	진술문	Q2-I		Q2-II		Q2-III		Q2-IV		Q2-IV	
		Q-SV	표준점수	Q-SV	표준점수	Q-SV	표준점수	Q-SV	표준점수	Q-SV	표준점수
15	학생기록물을 상시로 기증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증하기 어렵다.	0	0.22	2	0.88	1	0.53	0	0.2	1	0.36
17*	기증된 학생기록물은 '관련된 사건(주제)'보다는 기증자를 중심으로 분류(정리)되어 보존되어야 한다.	-3	-1.53	-2	-1.41	-2	-1.22	-2	-1.21	-3	-1.59
24*	개인적인 학생기록물을 기증한다면 활용보다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함이다.	-2	-1.14	-2	-0.78	-1	-0.7	-2	-1.14	-2	-0.75

Q-SV=Q-Sort Value, (P < .05 : Asterisk (*) Indicates Significance at P < .01)

요성과 수강 의사에 대해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학생기록물의 활용이 대학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유일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학생들의 학생기록물이 현재의 시점에서 대학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유일하게 중립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21〉 참조). 따라서 '비역사적 보존형'으로 명명하였다.

4.2.7 Q2 유형 간 공통된 특성

각 유형 간 표준점수 차이가 적어 공통된 특성을 보이는 진술문은 〈표 22〉와 같다. 모든 유형이 기증된 학생기록물은 사건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보존해야 한다(17번)고 인식하고 있으며, 기증목적으로 기록물의 활용(24번)을 꼽았다. 또한, “학생기록물을 상시로 기증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증하기 어렵다(15번)”는데 모든 유형이 다소 긍정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5. 결론

이 연구는 학생기록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객관적인 설문지법보다 인식에 관한 질문에 대해 자결적(自決的)으로 응답할 수 있는 Q 방법론을 활용하여 대학생의 관점에서 어떤 학생기록물을 보존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먼저 알아본 후(Q1), 학생기록물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유형화(Q2)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첫째, 학생기록물의 보존 중요도에 대한 인식(Q1)에서 네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Q1-I 집단적 증거형은 가장 많은 학생들이 해당된 유형으로, 차후 법적·행정적 증거로서 활용 가치가 크고, 공적활동에 기반을 둔 단체의 기록물들을 중요하다고 인식하며, 타 유형에 비해 사적(私的) 기록물의 보존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Q1-II 주체적 활동형은 학생들의 이념, 노력 등 학생들의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 생산된 학생기록물들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학생자치회 관련 학생기록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이는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특색 있게 구별되는 점이다.

Q1-Ⅲ 민주적 증거형은 공공에게 이익이 되는 역사적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와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닌 학생기록물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Q1-Ⅳ 성취 중시형은 학생이 스스로 노력의 결과를 쟁취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학생기록물이 활용되었을 때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만 불이익이 예상되는 기록물의 보존에는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

둘째, 학생기록물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Q2)에서 다섯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Q2-Ⅰ 공동체 역사적 가치형은 학생은 대학의 구성원이자 주체이기에, 학생기록물이 대학의 역사 및 정체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의사표현 수단이라는데 강하게 동의하면서 대학과 관련된 학생기록물에 대한 수집 및 보존에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

Q2-Ⅱ 개인적 소유형은 학생기록물을 개인적 소유물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개인적 소유물로서 학생기록물을 관리 및 폐기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보존 관련 강의 및 교육의 필요성에 부정한다. 학생기록물의 기증에 부정적이지만 행정적 기록물로 설명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문화를 학생기록물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학생기록물을 중심으로 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Q2-Ⅲ 역사적 전문가 관리형은 학생의 사고를 담고 있는 기록물이라면 공적·사적 구분

없이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학생기록물의 활용이 대학에 대한 소속감을 부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콘텐츠의 적극적인 활용을 지지한다.

Q2-Ⅳ 역사적 활용 가치형은 학생기록물의 역사적 가치에 기반한 콘텐츠의 적극적인 활용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콘텐츠의 개발을 위해 기증된 학생기록물의 저작권(소유권)이 학교에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점이 다른 유형과 구별된다.

Q2-Ⅴ 비역사적 보존형은 Q2-Ⅳ 유형과 반대되는 인식을 보이는 유형이다. 학생기록물의 역사적 가치에 동의하지 않지만, 대학 내 다른 구성원과 대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인식하며, 학생기록물의 내용과 사건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개개인의 관리 능력 함양을 위해 보존 관련 강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점에서 다른 유형과 구별된다.

연구 결과로 도출되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Q1-Ⅰ 집단적 증거형과 Q1-Ⅲ 민주적 증거형은 Q1-Ⅱ 주체적 활동형과 Q1-Ⅳ 성취 중시형과 다소 반대되는 인식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자의 인식은 기록관리학에서 공적인 기록물로 규정하는 기록물의 종류와 다소 비슷하며, 후자의 인식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은 기록관리학에서 민간기록물로 규정하는 기록물의 종류와 비슷하다. 따라서 학생기록물의 관리 방안에 대해 접근할 때, 두 유형의 기록물을 아우를 수 있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둘째, 대학생들이 학생기록물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가치와 보존적인 중요성, 관리 주체에 대해 각기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Q2-Ⅰ 공동체 역사적 가치

형과 Q2-Ⅲ 역사적 전문가 관리형, Q2-Ⅳ 역사적 활용 가치형은 학생기록물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가치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보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지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UCLA에서 진행되고 있는 BAP(Bruin Archives Project)⁶⁾와 같은 공동체 아카이브가 운영된다면 학생기록물의 보존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BAP는 아키비스트가 중심이 되어 수집하였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록물 관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수집활동을 하고 아키비스트가 자문을 하는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표 학생단체 기록물의 증가와 대학의 역사기록을 지원하며 MLIS 대학원생에게 실습의 기회를 부여하는 세 가지 목표로 운영되고 효과를 거두고 있다.

셋째, Q2-V 비역사적 보존형 또한 학생기록물의 보존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Q2-II 개인적 소유형은 학생기록물의 소실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쉽게 폐기될 수 있다고 인식한다. 이는 Q2-II 개인적 소유형에 속한 학생기록물의 휘발성이 더 촉진될 것임을 예상해볼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지책으로 매 학기 끝나는 시점에 역사관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기증을 받는 등의 자율적인 폐기를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학생기록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

한 단초 제공을 위해 학생기록물의 생산자인 '학생'의 심층적인 인식까지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지만 몇 가지 한계점도 있다. 첫째, 이 연구는 개인 내 주관성을 강조하는 소표본이론에 근거한 Q 방법론으로 연구되었다. 따라서 연구에 응답한 32명을 대상으로는 타당하나 대학생이라는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후속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연구의 축적이 요구되며 양적연구를 병행하여 표본을 확보한 후, 인식간의 상호관계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학생기록물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주관성이기 때문에 성별, 학년별, 단대별에 따른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출된 유형을 확인하기 위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성별, 학년별, 단대별에 따른 차이를 심층적으로 연구해볼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진술문을 선정하는데 있어 명확하게 구분된 진술문을 선별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Q 표본의 분류 단계에 앞서 학생기록물의 종류에 대해 설명을 하고, 후속면담을 진행함으로써 Q 진술문에 대한 오류를 줄이고자 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학생기록물의 진술문을 선정하는데 있어 글뿐만 아니라 학생기록물의 사진도 같이 제시하여 인식의 오류를 줄이길 제안한다.

6) Bruin Archives Project,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UCLA, 2012, Retrieved 22 April 2017, from <<https://uclasaa.wordpress.com/bruin-archives-project/>>.

참 고 문 헌

- 국가기록원. 2015. 2015년 대학 기록관리 지침 [online]. [cited 2017.4.3].
 <<http://www.archives.go.kr/next/data/guidelines.do>>.
- 국가기록원. 2016. 2016 대학 기록관리 매뉴얼 [online]. [cited 2017.4.3].
 <<http://www.archives.go.kr/next/data/guidelines.do>>.
- 국가기록원. 2017. 2017년 대학 기록관리 지침 [online]. [cited 2017.4.3].
 <<http://www.archives.go.kr/next/data/guidelines.do>>.
- 김흥규. 1996. Q 방법론의 유용성 연구. 『주관성 연구』, 1: 15-33.
- 김흥규. 2003. Q 방법론 및 이론: Q 방법론 (Q Methodology)의 정치학적 적실성과 적용 가능성. 『주관성 연구』, 8: 5-19.
- 김흥규. 2008. 『Q 방법론: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류신애. 2013. 대학기록관의 학생 커뮤니티 아카이빙 방안. 한국기록학회 제93회 월례연구발표회 자료집 [online]. [cited 2017.4.3].
 <<http://www.ksas1.org/modules/bbs/index.php?mode=download&code=pds&id=270>>.
- 박지영. 2005. 『한국 대학기록관의 매뉴스크립트 운영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기록관리학과.
- 오윤택. 2014. 『일상아카이브 방법론을 통한 새로운 대학기록 수집방안: 학생공동체 기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협동과정.
- 오택섭, 최현철. 2004. 『사회과학 데이터 분석법③: 인자분석·Q방법론·MDS·생존분석·LISREL』. 서울: 나남출판.
- 이유빈. 2011. 『대학 총학생회 자치활동의 설명책임성을 위한 기록관리 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 이정은, 강주연, 김은실, 김용. 2017. 대학생의 기록관 인식현황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51: 133-173.
- 최영주. 2005. 『대학기록관의 개인기록관리 방안』.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한국대학기록관협의회. 2006. 한국 대학기록관 설립 및 운영 지침 [online]. [cited 2017.4.3].
 <<http://web.yonsei.ac.kr/archives/대학기록관운영지침.html>>.
- 허윤정. 2017. 『대학기록관의 학생 동아리 기록 수집 방안 -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활용하여 -』.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협동과정.
- Brown, S. 1960. *Political Subjectivity*. New Haven: Yale University.

- Chute, T. G. 2000. "Selling the college and university archives: current outreach perspectives." *Archival Issues*, 25(1/2): 33-48.
- Hobbs, C. 2001. "The character of personal archives: Reflections on the value of records of individuals." *Archivaria*, 52: 126-135.
- Maher, W. J. 1992. *The management of college and university archives*. Lanham: Rowman & Littlefield.
- Samuels, Helen Willa. 1992. *Varsity Letters: Documenting Modern Colleges and Universities*. Lanham: Scarecrow Press. 이은경. 2010. 『대학기록』. 파주: 한울.
- Thompson, G. C. 1966. The evaluation of public opinion. In B. Berelson, & M. Janowitz (Eds.), *Reader in public opinion and communication*, (2nd ed., pp. 7-12). New York: The Free Press.
- Wagner, J. and D. Smith. 2012. "Students as donors to university archives: A study of student perceptions with recommendations." *The American Archivist*, 75(2): 538-566.
- Watts, S. and P. Stenner. 2012. *Doing Q methodological research: Theory, method & interpretation*. Sage. 백평구. 2014. 『방법론 연구의 실행, 이론·방법·해석』.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i, Young-Ju. 2005. *study of the documentation of personal document in a university archive*.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Records, Archives & Information Science.
- Heo, Yoonjeong. 2017. *A Study on Collection Strategies for Students Club Activity Records in University Archives: Using the Documentation Strategy*.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Archival Studies.
- Kim, Hung Kyu. 1996. "A Study on Usefulness of Q Methodology." *Journal of KSSSS*, 1: 15-33.
- Kim, Hung Kyu. 2003. "Q Methodology and Theory: The Political Appropriateness and Applicability of Q Methodology." *Journal of KSSSS*, 8: 5-19.
- Kim, Hung Kyu. 2008. *Q Methodology: science, theory, analysis and application*. Seoul: Communication Books.
- Lee, Jung-eun, Juyeon Gang, Eun-sil Kim, and Yong Kim. 2017. "A Study on a Method to Use Activation and Awareness on Archives of University Student." *The Korean Journal*

- of Archival Studies*, 51: 133-173.
- Lee, Yu Bin. 2011. *A Study on Management of Records for Accountability of University student body's autonomy activity - Focused on Myongji University's student body -*.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Records, Archives & Information Science.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5. 2015 College Records Management Guidelines [online]. [cited 2017.4.3]. <<http://www.archives.go.kr/next/data/guidelines.do>>.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6. 2016 College Records Management Manual [online]. [cited 2017.4.3]. <<http://www.archives.go.kr/next/data/guidelines.do>>.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7. 2017 College Records Management Guidelines [online]. [cited 2017.4.3]. <<http://www.archives.go.kr/next/data/guidelines.do>>.
- Oh, Taek Sub and Hyun-chul Choi.. 2004. *Social Science Data Analysis Method. 3, factor analysis · Q methodology · MDS · survival analysis · LISREL*. Seoul: Nanam.
- Oh, Yun-Taek. 2014. *A New Way to Collect University Record through Everyday life Archives - Focusing on Student Community Record -*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h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Archival.
- Park, Ji-Young. 2005.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manuscripts in college and university archiv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College of Humanities, Program in Archival Studies.
- Ryu, Sin-Ae. 2013. Method of College Student Community Archive Archives.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The 93rd monthly research presentation booklet [online]. [cited 2017.4.3]. <<http://www.ksas1.org/modules/bbs/index.php?mode=download&code=pds&id=270>>.
- University Archives Records Center. 2006. Guideline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Korea University Archives [online]. [cited 2017.4.3]. <<http://web.yonsei.ac.kr/archives/대학기록관운영지침.html>>.

[부록 1] 학생기록물 보존 중요도에 대한 인식(Q1) 진술문

No.	진술문
1	학생과 교수 간의 상담 내용을 담은 기록(의무적인 기록 제외)(ex.진로 상담, 성적 문의 포함)
2	교외 대회에 참가하여 받은 상장
3	교외 대회에 참가하여 생산한 기록물(사진, 녹취, 동영상 등 관련 기록물)
4	학교 행사(학교 축제, 전체 운동회 등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한 학생이 촬영한 사진, 동영상
5	학교 행사(학교 축제, 전체 운동회 등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한 학생이 작성한 메모
6	기숙사 내에서 룸메이트 간 협의한 규칙을 적은 문서
7	기숙사 내에서 룸메이트 간 SNS(카카오톡 포함)
8	교내 학생 간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생산된 기록물(ex.버디버디, 멘토링 등)
9	학교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 게시글(ex.전대광장 등)
10	학생이 개인적으로 출간한 도서
11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작성한 일기, 편지, 녹취, 사진 등의 기록물
12	졸업 당시 친구들과끼리 만든 기록물(ex.편지, 사진, 동영상, 현수막 등)
13	전체동아리활동을 통해 생산된 사진첩, 동영상
14	전체동아리 내 온라인 게시판의 글
15	전체동아리에 참가하면서 개인적으로 학생이 생산한 기록물(사진, 일기, 동영상 등)
16	학생운동의 활동의 증거가 되는 기록물들(ex. 이화여대 촛불집회, 전남대 학생시위 등 특정한 사건과 관련된 기록물들)
17	학생들의 사회적 의사를 담고 있는 대자보
18	학생이 교내 신문, 잡지에 투고한 글
19	교외 공모전에 참가한 출품작
20	학과 소모임의 오프라인 방명록(아뜰리에, 방명록 등)
21	학과 소모임의 온라인 SNS
22	학과 소모임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
23	총학생회의 회의 자료 및 학생회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행사 운영 포함)
24	총학생회에서 운영한 SNS(00대 학생회 페이스북 등)
25	익명의 학생이 운영한 SNS(대나무숲, 00대학교 대신 알려드립니다 등)
26	전체동아리연합회(중앙동아리를 관리하는 자치회)의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
27	총학생회장 선거에 사용된 후보자들 관련된 기록물(전단, 명함, 공약집 등)
28	총학생회장 선거 당시 사용된 투표용지, 투표인명목록 등
29	총학생회에서 발간한 홍보집, 포스터, 안내책자 등
30	학생들이 참가한 크루에 참가한 학생들이 생산한 사진첩, 회의록, 동영상 등의 기록물
31	학생들이 참가한 크루의 온라인 게시글(SNS 포함)
32	학과 학생회의 회의 자료 및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
33	학과 행사(운동회, MT 등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한 학생이 생산한 사진, 동영상 등의 기록물
34	선배를 통해 전해져오는 시험 족보집
35	수업시간 제출된 과제
36	학교 콘테스트에 출품된 출품작(노래, 사진, 그림, 동영상 등)
37	학생들끼리 모여 진행한 연구 활동의 결과물(학교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였으나, 학과의 과제로 제출되지 않은 연구만 해당)

[부록 2] 학생기록물에 대한 주관적 인식(Q2) 진술문

No.	진술문
1	교내 활동을 하면서 생산한 개인적인 기록물은 학생기록물로서의 가치보다는 개인적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더 높다.
2	교내 활동을 하면서 생산한 개인적인 기록물은 나의 소중한 추억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기록물이며, 이는 학교의 역사 및 정체성과 연관성이 없다.(행정적, 공적, 의무적으로 학교를 통해 생산되는 기록물 제외)
3	내가 수업 중에 생산한 노트 및 연구 관련 기록물은 대학 내 지적 발전(연구 활동, 과제 해결 등)에 도움을 준다.
4	수업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기록물의 활용은 학내 지적 발전(연구 활동, 과제 해결 등)에 도움을 준다.
5	학생기록물은 교수 기록물, 행정기록물만큼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
6	학생기록물이 학교의 역사 및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7	학생기록물은 대학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함으로써 대학의 존립과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한다.
8	학생기록물은 행정기록물을 보조하는 역할이며, 이를 뒷받침하는데 있어 가치를 지닌다.
9	학생기록물은 행정적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10	학생은 학생기록물이 생산된 활동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기록물의 관리는 학생들이 하는 것이 좋다.
11	학생기록물의 관리는 학생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학교(기록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
12	학생기록물을 오래 보존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강의를 있다면 들을 것이다.
13	학생기록물의 보존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4	학교의 역사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내가 가진 학생기록물을 적극적으로 기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5	학생기록물을 상시로 기증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증하기 어렵다.
16	학생기록물들을 지금까지 스스로의 기준으로 보존 및 관리해왔고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17	기증된 학생기록물은 '관련된 사건(주제)'보다는 기증자를 중심으로 분류(정리)되어 보존되어야 한다.
18	일반 학생들의 학생기록물이 보존되기 보다는 학생회장과 같은 특정 학생들의 학생기록물을 중심으로 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
19	학교와 관련된 주요한 사건(ex.이화여대 촛불시위)이 있다면, 사건이 끝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된 학생들의 기록물이 수집되는 것이 좋다.
20	현재 학생들의 기록보다는 과거 학생들의 기록이 우선적으로 수집되고 보존되어야 한다.
21	학생기록물을 기증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까봐 걱정된다.
22	기록관에 수집되더라도 개인적인 기록물이기 때문에 보존만 되고, 공개되지 않았으면 한다.
23	학교의 발전에 기여가 되도록 수집된 학생기록물을 활용한 콘텐츠의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24	개인적인 학생기록물을 기증한다면 활용보다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함이다.
25	과거에 생산된 학생기록물들은 현재의 우리들이 학교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6	학생기록물의 활용은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27	학생기록물은 내가 아닌 다른 이들에게로 향하는 학생들의 의사표현의 수단이다.
28	학생기록물은 의식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생산된다.
29	학생기록물은 추억을 나눈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Communication)에서 만들어진 일상적인 기록물이다.
30	내가 생산 및 보관하고 있는 학생기록물은 쉽게 버릴 수 있으며, 그래도 큰 상관이 없다.
31	공식적인 모임이나 단체를 통하지 않은 비공식적 활동과 관련된 기록물은 학생기록물이 아니다. 즉, 학생이 공식적인 단체(ex.총학생회, 중앙동아리 등)를 통해 생산해낸 공식적인 기록물만이 학생기록물이다.
32	교수님과과의 개인적인 상담 내용도 대학의 역사 및 정체성에 도움이 되는 학생기록물이다.(의무적으로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기록물 제외)
33	학생기록물의 형태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34	학생기록물에 대한 저작권(소유권)은 기록물이 기록관에 기증되어도 학생에게 있어야 한다.

